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6호 【루계 제23138호】 주체99(2010)년 7월 5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어버이수령님의 강성대국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깊이 심어주어

각지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습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우리 인민의 행복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부강조국건설위업에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해설담화자료와 여러가지 형식의 편집물을 시, 군당조직들에 내려보내였다. 이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이 강연과 도서선전, 접견자들과의 상봉모임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은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와 현지지도표식비,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이 진행되고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혁명의 진로》를 가지고 학습반단위로 진행되고있는 로작연구토론회는 실효를 거두고있다.

연안군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실정에 맞게 잘 조직하고있다.

이즈음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찾으시였던 오현, 천태협동농장을 찾는 참관자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배천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금성협동농장, 수원농장의 당일군들은 직접 강사가 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농장에 찾아오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가슴뜨거운 내용을 가지고 해설사업을 하여 농장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사리원시, 서흥군, 승호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들에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신 내용을 가지고 도록해설모임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특히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인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가지고 도안의 당조직들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는 교양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어버이이시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평안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도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에 대한 참관과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평원군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군의 자랑찬 오늘이 있음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혁명사적관과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를 통하여 심화시키고있다.

7월에 들어와 원화혁명사적관과 삼봉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을 찾는 참관자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다. 이에 맞게 군당위원회는 참관조직을 짜고들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게 하고있다.

원화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에 깃들어있는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관과 명제해설모임 등을 배합하여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교양사업은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농사를 잘 지어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일념으로 불타게 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를 비상히 폭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영원한 주체의 태양

◇ 만민의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는 오늘 주체의 봉화가 타오르는 대동강반에도 끝없이 굽이치고있다.

주체사상탑개선문관리소 강사 김혜란동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80돐이 되는 올해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속에는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있다. 주체사상탑의 높이는 170m이지만 인류의 마음속에 솟아있는 주체의 〈진리탑〉은 영원한 우주의 높이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있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사상의 위대성은 수자로 표현할수 없다. 이 세상에 진보적인 사상들이 출현한 력사는 수수천년을 헤아린다. 그러나 주체사상과 같이 우리 수령님의 영생과 더불어 인류의 마음속에 무한대의 높이로 솟아있는 위대한 사상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온 누리를 밝히시는 영원한 주체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제일입니다.》

언제인가 뻬루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나에게는 일생을 바쳐 숭배하는 위대한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20세기의 인류가 낳은 전설적위인 김일성동지이시다. 내가 그이를 숭배하게 된것은 무엇보다도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매혹되였기때문이다.》라고 썼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세계를 밝히는 홰불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이며 력사를 전진시키는 기관차이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주체사상의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시는 주체의 태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 우리가 가는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백전백승의 주체의 길이다.

지난 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폭포치며 쏟아지는 비날론솜을 보시면서 격정에 넘쳐 하시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승리요! 동무들, 나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이 비날론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주체의 비날론입니다.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비날론솜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새 비날론솜을 수령님께 어서 가지고 갑시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를 쾅쾅 생산하고있는 로동계급처럼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여나가는 사람이 어버이수령님의 참된 전사, 제자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진정한 혁명동지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주체사상승리의 자랑찬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끼자.

현지말씀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위력한 대상설비생산기지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흥남가스화대상설비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에 한결같이 떨쳐나 날에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기쁨을 드리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이들은 대상설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여있는 경제적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 5월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주물직장과 제4기계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룡성기계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룡성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주물직장을 더 잘 꾸리며 흥남가스화대상설비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만들어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새로운 위훈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나가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보답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주물직장을 보다 훌륭히 꾸리며 흥남가스화대상설비를 제 기일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참모부에서는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동원하고 주물직장에 일떠세운 유도로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참모부에서는 이동참모회의를 실속있게 조직하여 전투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고있다.

소재부문과 가공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대상설비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1, 2주강직장과 단조직장을 비롯한 소재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의 선행공정을 지켜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소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흥남가스화대상설비와 경공업과 전력공업부문에 필요한 대상설비를 제 기일에 무조건 생산하여 보내줄 불타는 마음안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있다.

1, 2, 4기계직장, 대형공작기계직장, 압축기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품가공과 조립에서 깐진 일본새를 발휘해나가고있다. 제4기계직장의 70m대형문형평삭반기대공들은 흥남가스화대상공사장에 보내줄 압축기부속품가공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행하는 위훈을 세웠다. 대형공작기계직장의 타닝공들도 송풍기본체와 날개가공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대상설비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경공업혁명의 불길드높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사리원방직공장에서— 김진명 찍음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

평안북도의 협동농장들

평안북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논밭김매기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알곡수확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것입니다.》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과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을 담당한 긍지와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당면한 김매기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게 하고있다. 그리고 경제선동력량과 수단들을 김매기전투장에 집중시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협동벌마다에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알곡수확고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한포전의 김을 매도 풀 한대 있을세라 깐진 일본새를 발휘하고있다.

운전군, 동림군안의 협동농장들이 논김매기를 잘하고있다.

모내기를 적기에 와닥닥 해제낀 운하, 보석협동농장을 비롯한 운전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모내기를 한 날자와 포전에 풀이 돋아난 상태를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김매기계획을 포전별, 날자별로 면밀하게 세우고 그에 맞게 로력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그날 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안산, 풍천협동농장을 비롯한 동림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포전에 풀이 돋아날세라 김을 여러번 돌려맬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밭김매기에서는 곽산군, 선천군, 태천군, 녕변군안의 협동농장들이 실적을 높이고있다.

곽산군, 선천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부림소를 리용하여 강냉이밭후치질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로력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강냉이밭김매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태천군, 녕변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모든 농장원들이 알곡생산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김매기를 깐지게 하여 실적을 올리게 하고있다.

특파기자 김기두

락랑구역의 협동농장들

락랑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논벼가 튼튼히 자라게 하는데 좋은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논물관리를 잘하고있는 룡호협동농장에서 관리공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전습을 조직하였다. 기술전습에서는 논벼의 생육조건과 필지별특성에 맞게 물관리를 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배워주었다.

기술전습이 있은 후 농장들에 내려간 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것이 논벼의 정보당 소출을 높이는데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농장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논물관리공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송남협동농장에서는 책임성이 높은 농장원들을 논물관리공으로 배치하고 그들이 논물관리를 잘하게 하고있다. 이곳 농장의 논물관리공들은 벼의 품종과 토양조건, 필지별특성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여러가지 물대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논벼가 튼튼히 자라게 하고있다.

금대협동농장의 논물관리공들은 논물온도와 논물깊이를 자주 재여보면서 논벼가 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아지치기를 원만히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 룡호협동농장과 벽지도협동농장을 비롯한 다른 협동농장의 일군들은 논물관리공들이 일하는 포전에 자주 나가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한 조건에서 논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자면 어떤 문제들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가를 원리적으로 깨우쳐주면서 그들이 논물관리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더 잘 지키게 하고있다.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들에서 농작물의 비배관리에 필요한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내밀고있다.

특파기자 최재남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더 많은 석탄을

석탄생산성과 계속 확대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공동사설과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6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일군들과 함께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걸린 문제를 적극 풀어주고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의 현대화를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굴진을 앞세워 채굴조건이 유리한 채탄장들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갱을 개발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또한 기술자들이 탄광들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동발나무와 탄차베아링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이 탄광들을 맡고나가 막장에서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패기있게 벌려나가면서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경사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안고 《희천속도》창조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석탄생산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갈 자신만만한 투지에 넘쳐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고건원탄광에서는 탄밭을 넉넉히 마련한데 기초하여 발파효률을 높여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석탄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으며 캐낸 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르고있다. 탄광의 탄부들은 채탄면에 맞는 앞선 탄캐기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미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룡북청년탄광의 탄부들이 충천한 기세로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탄광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고 채탄장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채취률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굴진공들은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고 착암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덕촌갱과 룡서갱의 탄부들은 막장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를 깐지게 하고 그 가동률을 높여 전달 같은 시기에 비해 많은 량의 석탄을 캐내고있다. 탄광에서는 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데 맞게 압축기와 권양기, 전차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오봉탄광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아래 다른 탄광들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밑에 석탄증산투쟁을 과감하게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리성호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황해남도중소탄광관리국에서

황해남도중소탄광관리국에서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도중소탄광관리국아래 여러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매달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요즘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생산을 더 늘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소탄광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석탄생산을 더욱 늘여나가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중소탄광들에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대책을 제때에 세워주면서 석탄증산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7월에 들어와 관리국아래 모든 탄광들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그 앞장에는 올해에 매달 계획을 넘쳐 수행한 학림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서있다. 이들은 제힘으로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생산실적을 계속 올리고있다.

장연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채탄과 운반 등 모든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리게 함으로써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굴진을 앞세워 전망이 좋은 탄밭을 넉넉히 마련해놓은 태탄, 은률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다. 이들은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는 한편 앞선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교대당 굴진실적을 높이고있다.

신원, 배천, 삼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용맹한 돌격투사가 될 든든한 배심을 안고 앞선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충천한 기세로 하여 석탄생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불멸의 존함 불러보기만 하여도 천만의 가슴에서 사무치는 그리움이 격랑치고 눈굽이 뜨겁게 젖어드는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무궁토록 안겨살며 수령님의 영생을 념원하는 고결한 사상감정은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일편단심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친 전설적애국자,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에 대한 아름다운 칭송의 노래이다.

어언 10여년세월이 흘렀다.

력사의 그 나날은 인민의 간절한 마음속에 인민의 어버이가 어떻게 영생하는가를 진리로 아로새긴 눈물겨운 날과 날들이였다.

혁명의 수령에 대한 령도자의 충정과 의리가 과연 어떤것인가를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찬연한 금문자로 새긴 격동적인 날과 날들이였다.

⁘ ⁘

특출한 령도력을 지니신 정치가이시기 전에, 국가수반이시기 전에 위대한 평민, 인민의 한 성원이기를 원하시여 한평생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

일찌기 우리 수령님의 품을 이 세상 전부로 알고 수령님품속에 안겨 천만년 살리라의 노래를 불러온 천만군민에게 있어서 수령님은 정녕 순간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민족의 운명이시며 어버이이시다.

늠실거리는 벼바다를 보면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에 심취되시여 이 벌판에서 하루밤 자고싶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행복에 넘치신 음성이 들려오고 도시와 농촌들에 희한하게 일떠서는 살림집들을 보면 이런 멋진 집에서 우리 인민모두를 살게 하는것을 소원하시던 수령님의 숭고한 덕망이 가슴뜨겁게 추억되여 그 영상 숭엄히 그려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던가.

인민의 어버이로 탄생하시여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위대한 심장을 열화같이 불태우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한생.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이 사는 이 나라를 가장 살기 좋은 락원으로 가꾸시기 위해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여 로동자, 농민들속에 계시기를 그처럼 즐겨하시며 누구나의 가슴에 잊을수 없는 정을 부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열정적인 사랑의 대상도 철두철미 인민이였고 사고와 실천도 오직 인민을 위해서이시였다.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리념을 정치철학으로 간주하시고 지극히 인민을 사랑하신 영원한 우리 어버이,

이 세상에서 옷자락을 찬이슬에 제일 많이 적시고 비바람, 눈보라를 제일 많이 맞으신분도 인민의 어버이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은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수령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천품이였다.

하여 인민을 위한 사랑의 력사를 광휘롭게 수놓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노래가 우리 조국에서 가장 감동적인 노래로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는것 아니던가.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시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볼수록 나라없던 지난날, 민족수난의 시기에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간다.

나라잃은 설음과 고통이 하늘땅에 사무치던 그때 숭고한 애국애민의 사상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풍파많고 시련많은 혁명의 가시덤불길을 개척하신 10대의 어버이수령님,

망국노로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댄 사람들만이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시련에 찬 길인가를 뼈에 사무치게 느낄수 있다.

산설고 낯설은 이국의 광야에서 해방의 날을 위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혈전의 길, 혹한의 길, 기아의 길을 강인한 신념과 의지로 무수히 헤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그 길에서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쓰라림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언두부 두 접시와 술 한병을 놓고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사랑하는 동생과 헤여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이국의 썰렁한 객주집,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호수나 못가만 보시여도 그 객주집옆의 못가가 떠올라 사랑하는 동생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으로 가슴쓰려 하시던 우리 수령님이시다.

광막한 백설의 광야, 백두밀림에서 나팔을 불며 도도하게 출발하였던 혁명군대오가 황량한 라자구등판에서 당한 전고미문의 고난은 또 얼마나 가혹했던가.

겨우 18명밖에 남지 않은 대오, 사방에서 욱실거리는 원쑤들, 바닥난 식량, 찢기고 터져 살이 드러난 군복…

온 지구덩어리가 통채로 매달린듯 우리 수령님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던 때였다.

혁명이란 이다지도 간고한것인가. 우리 혁명이 어쩌면 이렇게도 험한 벼랑끝에 와서게 되였는가.

황량한 이 산등에서 영영 전진을 멈추고 마는가.

우리가 주저앉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결사의 신념, 우리가 죽으면 조선을 구원할 사람이 따로 없다는 불굴의 의지로 라자구등판의 눈사태를 한치한치 헤치시던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을 그리워하는 천만군민의 가슴에서 저 멀리 천교령의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아직도 료원한 혁명의 길을 앞에 두고 우리 수령님께서 촉한으로 무서운 고열속에 신음하시던 때였다.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재생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는 민족이 슬퍼하고 실망할것이다. 일제는 지금 우리가 이 만주오지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절망에 빠져 투항하기를 고대하고있다. 력사와 시대앞에서 자기앞에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한줌 흙으로 사라져버린다면 그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인민앞에 불효자가 되고 마는것이다. 우리는 결코 불효자가 되지 않을것이다. 만일 우리 혁명군이 천교령의 빙설속에 영영 자취를 감춘다면 우리 인민에게로 쏠리는 일제의 폭압이 대번에 10배, 100배로 강화될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조선인민은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된다. …

이런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 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의 《반일전가》를 지으신 항일빨찌산대장 김일성동지!

반만년민족사에도 없었고 유구한 인류사도 알지 못하는 이 위대한 애국애민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수령님께서 사선을 헤치시였기에 조선혁명은 백두의 험한 산발을 넘고 헤치며 용용 전진하였고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로 날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오를수록 찬이슬 맞으시며 농장을 찾으시고 눈오는 이른새벽 공장을 찾으시네의 노래구절이 천만의 가슴에서 숭엄하게 울린다.

조국해방의 환희가 삼천리강토에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였지만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던 시기에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지지리 천대받던 우리 인민을 보란듯이 잘 살게 하기 위해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진눈까비가 흩날리는 음산하고 캄캄한 밤 미끄러운 비탈길로 차마 수령님을 모실수가 없어 안타까와하는 농민들에게 자신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 이보다 더한 눈길을 헤치며 몇날씩 대원들과 함께 쓰러지면서 행군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인민들이 흰쌀밥만 먹을수 있다면 이런 눈비를 얼마든지 맞겠다고 하시며 홰불을 들고 앞장서 험한 길을 걸으신 어버이수령님,

물을 긷느라 아낙네들의 정수리에 머리칼 하나 남지 않았고 꼬창모를 내느라 남정들의 열손가락이 다 무지러졌다는 열두삼천리벌에 평남관개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 얼마나 위대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던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물고생하는 농민들의 소원을 우리 시대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농민들이 물때문에 고생하는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열두삼천리벌과 대동강상류, 청천강가의 높고낮은 산발을 오르내리시기를 그 몇번…

숨이 컥컥 막히는 무더운 열풍, 그 찌물쿠는 더위로 풀잎들이 늘어지는 날에도 공사장을 찾으시였고 전화의 나날 침략자들이 대규모적인 《신공세》준비에 미쳐날뛰던 준엄한 시기에도 물에 대한 농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시려 건설을 담당한 일군을 부르시여 미국놈들이 파괴한 땅에 평남관개를 보란듯이 건설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옛날 지주놈 부럽지 않게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 농민들의 생활의 갈피갈피에는 또 얼마나 뜨거운 어버이사랑이 속속들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이름없는 한 농장원가정의 집오래에 널려져있는 나무단과 독들을 보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울타리를 널직하게 둘러주어야 하겠다고, 그래야 남새도 심고 꽃밭도 만들수 있으며 또 갖가지 과일나무도 심어 무더운 여름이면 로인들이 나무그늘밑에서 휴식도 할수 있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고 가장집물을 넣을수 있는 창고며 닭우리도 만들어주라고 다정히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우리 수령님은 이 나라 유자녀들속에서 더없이 인자하고 친근한 어버이의 모습으로 영생하고계신다.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서 미제침략군을 다 몰아냈던 60년전 12월 그믐께 어느날, 강계로부터 평양으로 나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시 순천군의 한 농가에 들리시였다.

전쟁의 모진 시련을 겪어오는 나날 어느 한시인들 잊은적 없던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모신 주인아주머니는 기쁨에 목이 꽉 메여 참고 참았던 눈물만 쏟았다. 지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당한 가슴터지는 일도 한꺼번에 사무쳐올랐다.

원쑤놈들에게 잃은 남편의 시체나마 찾아보자고 사방 헤매지 않은데가 없는 그였다.

그런데 바로 그처럼 가슴미여지는 날 밤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집에 오시지 않았는가.

허옇게 성에가 불린 벽, 꿰진 노전쪼각들, 방바닥에 널려자는 아이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가정이 당한 쓰라린 고초를 구석구석 헤아려보시며, 잠자는 아이들의 저고리깃을 헤쳐보시며 애들이 홑옷을 입었다고, 이부자리도 없고 옷가지도 하나 안보인다고 말씀하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였다.

부엌도 내려다보고 방바닥도 짚어보시면서 나무는 어떻게 해 때는가고 근심어린 어조로 물으시는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그지없이 인자하신 어버이이시였다.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부러운것 없게 활짝 피여났던 행복한 생활, 그 모든것을 원쑤들에게 하루아침에 다 짓밟히우지 않았던가.

너무도 참기 괴로우시여 목단추를 벗겨놓으시고는 손으로 문턱을 두드리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세상모르게 잠자는 어린것들을 측은한 눈길로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드디여 말씀하시였다.

아주머니, 얼마간 참으시오. 우리 저 애들을 아버지 있는 애들보다 더 의젓하게 키웁시다. 아무렴, 아버지 있는 아이들보다 못하게 길러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렴, 더 의젓하게, 더 훌륭하게 키워야지. …

목메인 흐느낌소리가 방안의 고요를 깨트리였다.

그 바람에 아이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여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대뜸 일군들에게 무엇이 좀 있으면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라고 당부하시였다.

아직 눈을 비비고있는 처녀애를 안아 파자봉지옆에 앉혀놓으시고 몸소 파자 한개를 집어주신 다음 남자애를 자신의 외투깃을 헤치시고 포근히 감싸안으신 어버이수령님…

달리는 차안에서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오래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몇십리를 잘 달리였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문득 일군들에게 물으시는것이였다.

우리 그 애들에게 무엇을 주었더라?

아버지를 잃은 그 어린것들에게 무엇이건 더 해주지 못하고 떠난것이 못내 걸리여 가슴아파하시는 말씀이였다.

평양에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체없이 내각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리고 순천에서 만났던 녀인의 심정, 아니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이 나라 모든 녀인들의 처지를 사랑하는 딸자식이 겪는 불행으로 깊이 헤아리시여 부모잃은 모든 아이들을 국가에서 맡아키울데 대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참으로 세계전쟁사의 갈피에 있어본적 없는 특별한 사랑이였다.

이런 열화같은 사랑으로 산비탈의 몇그루 사과나무를 보시고 온 나라의 과일동산을 내다보시며 북청의 산발을 오르시였고 버림받던 광포를 보시고는 가금업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으며 벌목공을 만나면 신발걱정부터 하시고 제사공을 만나시면 손부터 만져보신 어버이수령님,

그 넓은 품에 매 사람의 사소한 기쁨도 시름도 다 안고계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뗏뗏히 못한 길에 잠시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손길로 마음속의 주름살을 펴주시고 잘못을 저질러 괴로움을 겪는 사람의 가슴속에는 신심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워주시여 사람들모두가 희망에 넘쳐 애국위업에 떨쳐나서게 해주신 우리 수령님,

이처럼 민족의 념원으로부터 매 사람의 소망까지 다 헤아려주시려니 우리 수령님의 로고 얼마나 크고 어느 한순간도 편히 쉬실 시간이 있을수 있었으랴.

강도 일제와 싸우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에 푹 쉬자고 하시고 침략자 미제와 싸우던 전화의 날에는 미제를 쳐부신 전승의 그날에 푹 쉬자고 하시였으며 전후에는 인민들이 다 잘 살게 된 다음에 푹 쉬자고 하시며 잠시의 휴식도 끝끝내 미루어오신 어버이수령님!

이런 인민의 위대하고 친근하신 어버이를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찌 한순간인들 잊을수 있으랴.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천만년 길이 살리!

이 절대적인 신념, 이 고결한 의리가 날이 갈수록 수령님을 더욱 그리워하는 우리 인민의 강렬한 사상감정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이 열화같은 념원을 실현시켜주시는분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어버이장군님을 강성대국승리의 단상에 높이 모실 영광의 그날을 가슴에 안고사는 천만군민의 심장에서 삼천리 내 조국에 해빛은 찬란하고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네의 노래구절이 숭엄히 메아리친다.

어버이수령님을 천년만년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려는것은 나의 의지이다. 누구도 나의 이 의지를 꺾지 못할것이다!

이런 절대불변의 일편단심으로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총대혁명위업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실현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며 그 길에서 조선의 혁명가들이 어떻게 혁명의 수령을 모시고 받드는가 하는 산 모범으로 세계정치계를 격동시키시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초소를 찾으시여도 어버이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곳을 먼저 찾으시고 일터를 찾으시여서도 수령님과 더불어 빛나는 연혁부터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수령님모습그대로 병사들과 인민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소박한 공연도 보아주시는 인민의 어버이,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치여 사랑하시고 위해주신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수 있게 해주겠는가.

애오라지 이 열망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며 장쾌한 주체철바다, 비날론바다, 비료바다, 과일나무바다를 끝간데 없이 펼치시는 그 위대한 충정에서 우리 다같이 절감하지 않았던가.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라고!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자나깨나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순간순간 수령에 대한 충정의 열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수령님을 위한 일편단심의 길로만 억척같이 걸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신 우리 조국에서처럼 다함없는 수령의 노래로 강산이 진동하고 련일 승전고를 울리는 나라를 고금의 력사는 알지 못한다.

충정과 의리의 최절정에서 만민의 끝없는 신뢰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인민과 함께 영생하시며 날을 따라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선군조선과 더불어 무궁토록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량 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민스크

벨라루씨공화국 대통령

알렉싼드르 그리고리예비치 루까쉔꼬각하

나는 벨라루씨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7월 3일 평 양

쁘라야

베르데갑공화국 대통령

뻬드루 뻬레스각하

나는 베르데갑독립 및 공화국선포 3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35년전 귀국인민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공화국을 선포한것은 베르데갑의 자주적발전과 사회경제적진보에서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되였으며 동시에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의 출발점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이 뜻깊은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가 보다 확대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 (2010) 년 7월 3일 평 양

농업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에서— 신 충 혁 찍음

주체농법은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농법

지금 온 나라는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려는 드높은 혁명적열의로 끓어번지고있다.

우리가 당의 의도대로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농사일을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가장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방법입니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이다.

주체농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농업분야에 구현하여 창조하신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농법이다.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험한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농사경험도 들어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의 농업실태도 연구분석하시였다. 손수 저택의 정원에 시험포전을 꾸려놓으시고 여러가지 작물들을 심어가꾸시면서 그 누구도 포착할수 없었던 작물들의 생물학적특성을 밝히시며 그에 맞는 영농방법을 찾아내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주체농법의 창시는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업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기 위하여 주체농법을 더욱 발전풍부화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주체농법에 대한 강습과 기술전습회를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고 농업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해주시고 새로운 품종들을 보내주시여 농업과학연구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으며 그 연구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만년대계의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농업생산의 기본고리인 종자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였으며 새로운 영농기술들이 개발되여 주체농법이 더 큰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지난해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는 주체농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주체농법은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적조건에도 끄떡없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가장 우월한 농법이다.

주체농법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 과학농법이라는데 있다.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지형조건이 매우 복잡하여 기후조건이 지대마다 차이나며 지질조건이 다양하고 토양형성과정이 복잡하므로 포전마다 땅의 성질도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농사를 어디에서나 일률적으로 꼭같이 지을수 없다.

주체농법은 한개의 포전 또는 필지를 단위로 토양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에 맞는 농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땅다루기, 모옮겨심기, 비료주기, 물관리 등 영농방법을 개별적포전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방도를 밝혀준다.

주체농법은 이와 함께 농작물의 생산공정별생물학적특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생육단계별로 온도, 물기, 영양물질 등을 생물학적요구에 맞게 충족시킬수 있도록 기술준비를 앞세우고 포전별로 생산기술공정표를 만드는 등 생산기술공정을 과학화함으로써 단위면적에서 가장 높은 수확을 낼수 있게 하는 우월한 과학농법이다.

주체농법의 우월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부침땅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조건에 맞게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 집약농법이라는데 있다.

주체농법은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집약적으로 리용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하는 집약농법이다. 주체농법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성질을 포전별로 세밀히 조사분석한데 기초하여 랭습한 땅, 물이 새는 논, 산성토양 등을 체계적으로 개량하며 모든 논밭에 부식토와 진거름, 물거름 등 유기질거름을 많이 내고 4요소비료와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를 알맞게 주어 부침땅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여 농업생산집약화의 요구를 실현하게 한다.

주체농법에서는 포기농사를 기본으로 하여 농업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한다. 포기농사는 단위면적에 포기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포기마다 웅근소출을 내게 하는 고도로 집약화된 영농방법이다. 앞선 포기배치방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포기관리를 잘하여 포기마다 웅근소출을 내게 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주체농법에는 이밖에도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에 기초하여 영농작업을 적기에 질적으로 추진시키고 농작물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것과 함께 토지와 물, 농기계, 비료를 비롯한 농업생산수단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며 이상기후현상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모든 방도가 명확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을 안전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근본담보이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주체농법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올해의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할것이다.

리 철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시는 길에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주체83 (1994) 년 7월 11일과 19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위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처럼 걸출한 위인, 걸출한 령도자를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력사앞에, 후세앞에 지니고있는 본분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은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해 높이 추대되신 우리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였다고,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 곧 수령님이시라고, 전세계의 벗들도 우리 수령님을 김일성주석이라고 칭송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전인류의 친근하고 고귀한 명함이 된 김일성주석이라는 존칭을 조국청사에 영원히 기록하며 후대들도 주석이라고 할 때에는 오직 김일성주석 한분만을 긍지높이 칭송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시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쌓으신 공적으로 하여 가장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아오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이다.

주체년호와 태양절

주체83 (1994) 년 10월 16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86 (1997) 년 1월에도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더 뜻깊게 기념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주체86 (1997) 년 7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와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하는 공동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주체년호와 태양절제정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중대결정의 채택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펼쳐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당의 기본구호로

주체83 (1994) 년 7월 중순 어느날 새로 형상한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이 초상화를 보면 한없이 인자하신 어버이수령님을 직접 뵈옵는것 같아 대단히 좋아할것이라고, 우리 인민들은 환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면서 수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당의 기본구호로 제정해주시였다.

이 구호에는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만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어리여있었다.

본사기자 리 성 국

총공세의 불길높이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에서 자랑찬 위훈 창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떨쳐나선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

크나큰 믿음으로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시여

내 조국의 력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전변으로 엮어지고있다. 우리 인민을 걸음걸음 승리와 행복에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자욱, 백두산위인께서 찍어가시는 그 자욱자욱을 따라 조국은 일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그 빛나는 자욱은 북방의 심산유곡에 자리잡은 어랑천발전소건설장에도 뜨겁게 아로새겨져 창조와 변혁의 위력한 추동력에 대해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강선의 봉화따라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습니다.》

지난 5월,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건설현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던것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현지에서 뜻밖에 만나뵙게 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격정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를 잠시나마 풀고 오시였다면, 좁고 가파로운 산골길을 굽이굽이 돌고돌아 오시지 않게 해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한대의 정력과 활력에 넘치시여 건설장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자기의 웅장한 모습을 확연히 드러낸 2호발전기실이며 아득한 산벼랑을 타고 줄줄이 뻗어내린 철관로들, 산협을 가로지르며 하늘가에 치솟은 팔향언제…

그 모든 자랑찬 건설성과들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설자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실 때 일군들은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마음속 진정을 터치였다.

《어랑천발전소건설장의 모습이 몰라보게 달라지게 된것도, 놀라운 건설속도가 창조될수 있은것도 모두 위대한 장군님의 덕입니다!》

실로 그러했다. 어랑천발전소건설사의 갈피갈피에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수력발전소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몸소 언제의 위치까지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어랑천발전소건설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비바람을 맞으시며 건설초기에 오시였던 우리 장군님께서 눈보라를 헤치시며 건설도중에 찾아오신것은 언제였으며 머나먼 현지지도길에서도 어랑천발전소건설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신것은 그 몇차례였던가.

오실 때마다 함경북도인민들이 통이 크고 용타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건설방향과 방도도 환히 밝혀주시며 걸린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진정 위대한 그 사랑, 그 령도가 있었기에 어랑천은 세기적잠에서 깨여날수 있었고 험산준령들을 한줄기로 꿰며 지하의 물길굴이 뻗어나갈수 있었다. 우리 식의 새 기술공법들이 창안도입되고 발전소건설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적이 창조된것도, 철관로조립과 발전기실, 언제공사 등 발전소건설전반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것도 전적으로 빛나는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인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힘든 고비를 다 넘긴 때에 또다시 건설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지금껏 바쳐오신 그 모든 로고와 심혈은 다 잊으신듯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을 높이 치하하시였으며 건설에서 절박하게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은 물론 전망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까지 일일이 다 해결해주시였다.

떠나실 때에는 발전소건설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라시며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크게 고무격려해주시고 가시여서는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은정어린 선물도 한가득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번에 진행하신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로 하여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은 새로운 활력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건설방향과 방도는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칠수 있게 하는 필승의 보검, 공격의 화살표가 되여 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애국충정의 불도가니로 화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 건설장에서 결사의 맹세가 터져나오고있다.

《발전소건설을 기어이 기한전에 끝내고 위대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비약의 폭풍이 휩쓸고 애국열의가 활화산처럼 분출하고있는 발전소건설장의 장엄한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기적과 변혁의 강력한 추동력임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어랑천발전소, 이제 발전소가 완공되여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행복의 불야성을 이룰 때 함경북도인민들은 심장에 더욱 깊이 새겨안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쳐가시는 애국헌신의 자욱우에서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진다는 고귀한 진리를.

기발한 착상, 대담한 실천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 건설자들

어랑천2호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는데서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맡은 임무는 참으로 무겁고도 중요하다. 조압수조공사와 철관로설치, 발전기실건축공사와 발전기조립 등 이들이 맡은 작업과제는 아름차고 방대하다. 그러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깨끗한 량심과 창조적지혜를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업소의 건설자들은 기술혁신으로 공사속도를 높이며 완공의 그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사업에서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요구의 하나입니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 기술자들은 어랑천2호발전소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맡아나섰다는 남다른 책임감을 안고 공사의 첫시작부터 대담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공사를 다그쳐나갔다.

—혁신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완공의 날을 앞당기자!

이런 비상한 열의는 사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모두의 가슴마다에 차넘쳤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으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도 공사기일을 단축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적극 찾아나갔다.

발전기실기초굴착공사가 벌어질 때였다. 발전기실의 위치를 잘 정하지 못하면 토량처리와 철관로설치작업에 많은 로력과 자재가 더 들어야 하였다. 그런 경우 이 공사를 하는데만도 몇년이라는 시일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왔다.

《발전기실의 위치를 바로 정하면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기일을 훨씬 단축할수 있습니다.》

서두수발전소건설때부터 공로가 있는 설계원 김도형동무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그가 내놓은 기발한 착상에 모두가 무릎을 쳤다. 굴착량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철관로의 길이도 훨씬 짧아져 많은 로력과 자재가 절약될수 있었다. 설계가 완성되자 1, 2, 3직장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즉시 공사에 달라붙어 발전기실기초굴착작업을 4개월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조압수조공사장에서 산비탈을 통채로 날려보내기 위한 현장협의회가 열렸을 때였다.

《잘 타산해보오. 정말 단번에 성공할수 있겠소?》

당책임일군의 물음에 설계실장 강영철동무가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자신있습니다. 대발파만 진행하면 조압수조건설을 훨씬 앞당겨 끝낼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속에는 사업소기술자들이 며칠밤을 새우며 진행한 치밀한 계산과 구체적인 설계방안들에 대한 확신이 넘치고있었다.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합쳐진 가운데 조압수조공사장에서 지심을 들었다놓는 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결과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로운 방식의 조압수조건설이 최단기간에 완공될수 있었다. 발전소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기술자, 건설자들이 창안도입한 기술혁신성과들은 이뿐이 아니다. 기중기가 미처 도착하지 못한 조건에서 굴착기를 개조하여 발전기실의 육중한 중량물설치를 짧은 기간에 진행한 사실이며 철관로공사에서 놀라운 속도를 낳게 한 새로운 휘틀공법 등 그 수는 무려 백수십건에 달한다.

오늘도 사업소의 건설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높은 건설성과로 빛내일 불같은 맹세로 가슴을 끓이며 기술혁신의 열풍으로 대고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되여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 기술자들의 완강한 투쟁속에 어랑천2호발전소 마감단계공사는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있다.

보이지 않는 격전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현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길굴총관통의 자랑찬 보고를 받으시고 어랑천발전소 물길굴건설자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였다.

보이지 않는 격전장에 《관통의 날까지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는 글발을 써붙이고 결사전을 벌린 물길굴건설자들의 위훈을 여기에 소개한다.

나라의 맏아들답게

김책제철련합기업소대대는 물길굴건설장에서 언제나 돌격의 기수가 되여 내달리고있다. 어제날 쇠장대를 쥐고 불을 다루어온 이들에게 있어서 물길굴뚫기는 사실 생소한 일감이였다. 굴진과 발파, 동발이라는 말을 처음 입에 올리는 전투원들이 많았고 갱작업에 필요한 공구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대대의 전투원들은 제몫을 다하고도 만세를 부르기 전에 공사전반을 먼저 생각하면서 스스로 새 일감을 맡아안고있다.

이들가운데는 《굴뚫기전문가》로 성장하여 다른 단위들에 초빙되여가는 기업소의 로체공이였던 동발소대장도 있다. 그 비결을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어디서든 맏아들구실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완강한 기질의 소유자들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와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대대 전투원들은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수백m구간의 암층을 끝끝내 극복하고 관통의 시각을 맞이하고야말았다. 한구간을 보통 대여섯번 지어 일곱번씩이나 반복하여 굴진해야 했던 작업갱굴진과정을 그들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있다.

그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배관속에 늘여진 쇠바줄》에 대한 일화도 생겨났다.

그 일화에는 붕락된 굴안에서도 굴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관통의 그날까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않겠다는 이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사의 신념이 비껴있다. 에돌아갈수는 없었다. 포기할수는 더더욱 없었다.

서서 달리다 안되면 무릎걸음으로라도 가야 했고 그래도 안되면 기어서라도 가야 했다. 한것은 바로 그앞에 그들이 끊어야 할 결승테프가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날은 오고야말았다.

아득히 멀어만 보이던 곳, 의지가 나약했거나 비겁했다면 종내 이르지 못했을 승리의 언덕에 정신력의 강자들은 드디여 올라섰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대오

《폭풍도 두렵없다!》

이것은 취수갱공사를 맡아본떼있게 해제낀 무산광산련합기업소대대 전투원들의 말이다. 결코 호언장담이 아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붕락과 때없이 터지는 석수와의 악전고투의 나날에 이들은 뢰성벽력에도 끔쩍하지 않고 천지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 용감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허리치는 물속에서 착암기를 돌린적은 얼마였으며 석수가 터져나오는 물줄을 몸으로 막아선채 《적기가》를 부른것은 몇번이였던가.

용감한 그 대오속에는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지키기 위해 육탄용사마냥 발파구역에 뛰여들었던 25살의 젊은 청년도 있다. 그의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지만 대대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다. 대대의 전투원들은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기꺼이 바쳐갈 숭고한 애국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오늘도 사람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깊은 물길굴속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떨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건설장이다. 산협의 묘한 위치에 자리잡은 언제건설장은 지금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도안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벌리는 드세찬 건설전투로 하여 하나의 격전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강행군을 다그치는 보병들의 전투서렬인가 골재를 나르는 돌격대원들의 달아오른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 파쇄기는 포병준비사격을 들이대듯 요란한 동음을 울린다. 여러 로선의 벨트콘베아들이 모래며 자갈을 혼합장에 《만장약》해주느라 쉬임없이 흘러가는가 하면 언제의 량안에서는 대기계화군단이 기동하는듯 수많은 건설기계들이 부지런히 오고간다. 언제우안에 발사대마냥 우뚝 선 혼합장에서 잘 이겨진 혼합물이 쏟아져내리자 전차와 대차가 앞을 다투어 혼합물바가지들을 싣고달리고 팔을 길게 내뻗친 언제기중기들이 겨끔내기로 혼합물바가지와 휘틀부재들을 닁큼닁큼 언제우로 들어올린다.

언제우에서는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건설자들의 휘틀조립과 혼합물다짐작업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건설자들이 언제기중기가 물어온 커다란 휘틀부재를 능숙한 솜씨로 제자리에 척척 들여앉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벌써 휘틀조립을 끝내고 혼합물바가지를 재촉하느라 호각을 획획 불어댄다.

《경쟁바람이 여간 세차지 않습니다. 건축3직장이 앞설만하면 어느새 건축5직장 사람들이 쑥 앞지른답니다.》

손에 신호기를 든 설비자동화직장 직장장 박경섭동무가 웃으며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낮에는 저렇게 승벽을 부리다가도 밤이 되면 서로 부족한 작업공구들도 보충해주고 설비수리도 함께 한다는것이였다.

건설장의 전경이 한눈에 굽어보이는 전망대에 오르니 한쪽은 고요한 산중의 호수요 다른쪽은 거창한 대건설전투장이라 참으로 장관이다.

자연을 정복해가는 인간의 이 무서운 힘을 과연 무엇으로 잴수 있을것인가.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의 인간들,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줄기차게 내달리는 건설자들의 심장의 분출이런듯 언제의 좌안과 우안의 여러곳에 큼직하게 써붙인 《장군님따라 천만리》,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결사관철》 등의 글발들이 한눈에 확 안겨든다.

《언제공사를 마감짓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 그날을 향해 모두가 이렇게 총공격전을 벌려가고있습니다.》

련합기업소지배인 동훈동무의 말이 가슴을 울려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행복의 그날을 앞당겨가려는 이런 미더운 건설자들의 신념에 떠받들려 언제가 솟고있다. 열혈의 인간들이 엄혹한 자연에 도전하여 신념의 산악을 세우고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현지보도

신념의 언제가 솟는다

많은 량의 다시마를 수확

신창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신창바다가양식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시마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6월 20일현재 년간 다시마생산계획을 110%로 앞당겨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정보당 보통 250~300t, 최고 310t의 다시마를 수확하였는데 이것은 바다가양식에서 보기 드문 혁신적성과로 된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다시마양식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갔다. 이들은 사업소앞바다의 실정과 해양학적조건에 맞는 다시마육종체계를 연구완성하고 양식장들을 전망성있게 질적으로 잘 꾸려놓았으며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깐지게 하여 해마다 다시마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왔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다시마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 만만한 결심과 투지를 안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합리적인 다시마양식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갔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솎음식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수확시기를 앞당겼으며 본격적인 다시마수확철에 들어서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더욱 빈틈없이 짜고들어 생산을 부쩍 늘이였다.

애써 키운 다시마를 하나도 허실없이 수확하여 인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할 뜨거운 마음안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다시마수확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갔다.

양식1직장과 양식2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가 다시마수확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올리였다.

양식1직장의 일군들과 1, 2작업반원들은 수십척에 달하는 전마선들을 자체로 수리정비하고 합리적인 기구들을 설치하여 일을 헐하게 하면서 매일 많은 량의 다시마를 수확하였다.

양식2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다시마수확과 실어들이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더 많은 다시마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앞질러가며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단천시에서

단천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떤 큰물에도 농경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하천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큰물피해를 미리막고 토지와 도시, 마을, 공장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들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어느날이였다. 기관, 기업소일군들은 남천하류에 모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무슨 긴급한 일이 제기되였을것이라고 짐작하고 모임장소에 도착한 일군들은 남천을 돌아보면서야 의문을 풀수 있었다.

—장마철에는 큰물에 농경지가 많이 류실될수 있을뿐아니라 주변환경이 피해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앞질러가며 미리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시당책임일군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때문에 긴말이 필요없었던것이다.

시에서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사업을 현지에서 하게 된데는 목적이 있었다. 기관, 기업소일군들이 현지를 밟아보며 자기 단위에서 해야 할 과제를 정확히 알고 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와닥닥 해제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기관, 기업소일군들은 자기 단위에서 해야 할 일감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성과는 예상외로 크게 나타났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일군들은 현지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로력과 륜전기재들을 집중하여 돌채취를 앞세웠다.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하니 한주일은 걸릴것으로 타산하였던 막돌채취와 운반이 3일동안에 끝나게 되였다. 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 일군들과 공사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실어온 돌을 기술적요구대로 투석하여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남천제방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시일군들은 강하천들의 실태를 앞질러가며 료해하여 한포기의 곡식도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복평, 오몽, 화장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섰다.

시안의 기관, 기업소로동자, 사무원들은 물론 가두인민반원들도 큰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돌을 날라다 쌓아야 할데는 쌓으면서 제방의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장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졌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백㎥의 돌을 날라다 물이 쏠리는 곳에 있는 뚝들을 안전하게 보강한데 이어 복천과 북천제방을 견고하게 보수하여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성과가 오를수록 시에서는 국토환경보호관리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도로, 강하천 등이 큰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국토환경보호관리부문의 일군들은 큰비가 내려 사태가 날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장악하고 담당한 단위들에서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태가 일어날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날마다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동림군 청강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동림군 청강협동농장에서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리고있다.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간 농장일군들은 농장원들에게 장마철피해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고무추동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작업반들에서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거두었다.

제5, 1, 4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모든 일을 깐지게 하였다. 이들은 한포기의 벼라도 물에 잠길세라 물이 쭉쭉 빠질수 있게 물도랑을 깊숙이 파고 잘 가셔내였다.

농장에서는 큰물에 의해 논벼가 잠기지 않도록 양수기들을 앞질러가며 잘 정비해놓고 운전공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이른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포전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논두렁과 물고상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면서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농장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포기의 강냉이라도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제2, 3작업반들에서 강냉이밭비배관리를 깐지게 하였다. 이곳 농장원들은 강냉이밭둘레에 물도랑을 깊숙이 파서 비물이 잘 빠지게 하였다. 그리고 말장을 든든히 박고 새끼줄을 늘이였다.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애국의 열정에 의하여 농장에서는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하천제방보수를 짧은 기간에

삼석구역 호남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큰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농장에서는 최근 며칠동안에 하천제방을 훌륭히 보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장일군들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하여 현지를 밟아가면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도록 하였다.

농장에서는 로력과 운반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공사의 질과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농장원들은 하천제방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보수하기 위하여 돌입히기와 잔디입히기를 질적으로 하였다. 작업반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이 벌어져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공사에서 성과가 이룩될수록 농장일군들은 돌보장에 힘을 넣었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이 동원되였다. 농장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며칠동안에 하천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결과 수십정보의 논과 밭을 큰물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윤용호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의 길

남포시송배전부 일군인 유중렬동무와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조국을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며 조국에 이바지한것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어머니조국의 참다운 아들딸이라고 할수 없다.》

전기, 그것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송배전부문 일군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그들은 1W의 전력도 제 피처럼, 살점처럼 여긴다. 남포시송배전부 일군인 유중렬동무와 종업원들은 바로 그런 인간들이기에 나라의 전력계통을 정상관리운영하고 전압단계를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줄수 있게 되였다.

송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가 발전소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애국적소행에는 량심이라는 고귀한 정신세계가 뿌리로 내려져있다.

조국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한번 해봅시다.》

작업장에 드리운 침묵을 밀어내며 이런 목소리가 울렸다. 순간 모여섰던 사람들은 유중렬동무를 쳐다보았다.

《이번 실험까지 모두 120번째인데, 이만하면 합격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중렬동무는 머리를 저었다.

《그렇게 말하는것은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것으로 되오. 우리는 이 절연물이 어떤 경우에도 해당한 고압전류에 견디여낼수 있도록 해야 하오. 그때까지 실험을 중단할수 없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있었다. 하지만 유중렬동무는 잠자리를 펼수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당원의 량심이 가리키고 시대가 불러 나선 이 길이였다. 지금 실험하고있는 절연물은 조국앞에 내놓을 량심의 결정체였다. 거기에 어떻게 단 한점의 불순물이라도 끼게 한단 말인가.

때는 몇해전, 당시 남포시송배전부의 유중렬동무네 실험집단이 실험하고있던 절연물은 절연성이 100%는 못되였어도 그만하면 송배전에 리용할수 있는것이였다. 실험과정에 그러한 지표에 도달하였다는것이 확증되였었다. 하지만 유중렬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조국앞에 내놓을 창조물은 설사 그것이 아무리 작은것이라 할지라도 완전무결하여야 한다는것이 그의 좌우명이였다. 하기에 그는 다시 로의 스위치를 넣었다.

붕— 고압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실험현장을 흔들었다. 이글거리는 불길을 주시하는 그의 눈앞으로는 지나온 달과 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나온 후 남포시의 송배전부문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유중렬동무는 시의 전력계통을 관리운영하는데 드는 많은 절연물을 어떻게 하면 자기 단위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할수 있겠는가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절연물을 만들자고 하면 우선 원료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그것을 먼데서 실어오면 실리에 맞지 않는다. 설사 지방원료를 찾아낸다고 해도 국가기준에 도달할수 있는 절연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역시 난문제로 나선다.)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그는 단념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절연물에 대하여 파고들자.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일찌기 가르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도서관들과 전력공업부문 단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의 사무실과 집에 많은 책들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절연물과 관련되는 모든 도서와 자료를 독파할 결심이였다.

탐구의 나날이 흘렀다. 그는 절연물을 생산하는 공장에 다니면서 어떤 원료와 설비들이 어떻게 생산에 리용되는가를 진지하게 관찰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지방원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절연물을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렇다. 우리 자재,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어낼 때에만 나라에 리익을 줄수 있다.)

문제는 원료였다. 그는 시주변에 대한 지질조사와 토양분석을 진행하였다. 때로는 눈보라를 헤치며, 때로는 찬비를 맞으며 그는 한㎡의 땅도 놓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깐깐히 시주변 지질, 토양상태를 조사분석하였다.

피타는 노력끝에 마침내 시주변의 한 지점에서 절연물생산에 쓸수 있는 원료를 찾아내게 되였다.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있던 흙을 조국의 재부를 늘이고 나라의 전력망운영을 개선하는데 유효하게 쓰게 되였다는 기쁨으로 유중렬동무는 하늘을 날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절연물을 생산해본 경험이 없었고 송배전부에는 필요한 설비도 없었다.

유중렬동무는 대중속으로 깊이 들어가 사람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였다.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하여야 한다. 열렬한 애국심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이것은 그가 병사시절에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였다. 정녕 인민군군인들이 언제 한번 불가능이라는 말을 해본적이 있었는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하면서 물길굴을 열어나간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모습이 다시금 떠올랐다.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군인건설자들처럼 투쟁하자!)

유중렬동무는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절연물생산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였다. 그를 기술자인 최경철동무가 적극 도와나섰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하라

우리가 만나본 유중렬동무는 남다른데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였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 무한히 고지식하고 솔직한것이였다.

《절연물은 전기를 속이지 못합니다.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량심적이여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한 첫 말이다.

—우리 나라의 절연물을 으뜸으로, 이것이 유중렬동무가 품고있는 리상이다.

지난 7년간 그는 그것을 위하여 완강히 투쟁해왔다. 120번째 실험에서 실패한 그는 121번째 실험에 달라붙었다.

(불순물을 깨끗이 없애지 못한다는것은 곧 조국을 받드는 량심에 티가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유중렬, 최경철동무들은 지금까지의 공정에서 놓친것이 없는가 세밀하게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지방원료의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험에 들어갔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공의 기쁨을 맛보려고 저도모르게 서둘렀다는것을 느끼였다.

(그게 바로 우리 량심의 티가 아니겠는가. 무엇인가 하루빨리 내놓으려는 욕망에 들뜬 우리가 무슨 량심에 대해 운운할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자신을 아프게 채찍질하고 또 채찍질하였다.

—후날 이걸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가 만들었다고 떳떳이 나설수 있게, 조국앞에 책임지고 후대들앞에 보증할수 있게 만들자.

유중렬동무와 실험집단은 이렇게 결심하고 불순물제거에 나섰다.

절연성 100%,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의지였다.

유중렬동무는 원료조성상태를 다시 분석하면서 가까운 한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할수 있다는것과 그러면 절연성을 보다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국내자재에 의거한 그 불순물제거방법은 기발한 착상으로서 실험집단성원모두를 흥분시키였다.

《그는 무슨 일에서나 자기라는 존재를 생각하는적이 없습니다. 나라의 리익, 혁명의 리익, 이것이 항상 그의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와 만난 성형공 박옥성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옥같은 량심이 깃든 창조물이야말로 천년을 책임질수 있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는것으로 될것이다, 그와 같은 창조물을 내놓는것이 우리의 임무이다라고 각성하고 또 각성하며 유중렬동무는 헌신분투하였다.

언제나 집단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고 동지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며 절연물생산전투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나날에 그가 남모르게 흘린 땀, 소문없이 바친 열정은 그대로 창조의 소중한 열매로 되였다.

유중렬동무와 절연물생산기지 작업반원들의 티없는 량심과 불타는 애국열정에 의하여 남포시송배전부에서는 지금 전력계통운영에 필요한 수십가지 종류의 각종 절연물들과 전력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여 국가에 리익을 주고있다.

오늘 유중렬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력공업부문에 주신 과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또다시 앞장섰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 그것을 실천하는것이 그의 리상이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당이 맡겨준 자기 초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국에 하나라도 더 보탬을 주고 후대들에게 하나의 재부라도 더 넘겨주려는 그의 결곡한 량심에는 어제도 오늘도 티가 없다.

유중렬동무와 같은 참된 당원, 참된 인간들이 있기에 강성대국에로 나아가는 우리 대오의 발걸음이 그리도 힘찬것 아니겠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 철

희천발전소건설 평양시려단 만경대구역대대 돌격대원들

다진 맹세를 지켜

희천발전소건설 평양시려단에서 만경대구역대대는 《기둥대대》라고 불리우고있다. 높은 산중턱에 숙소도 보란듯이 일떠세운 그들은 공사실적에서뿐아니라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도 려단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대대전투원들이 일하는 곳은 해발 수백m나 되는 깊은 산골짜기이다. 위훈을 떨치고있는 만경대구역대대의 전투기록장의 한 갈피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여있다.

《오늘 우리는 수십m 붕락구간과 맞다들렸다. 책이나 영화를 통해 붕락이라는것을 알았을뿐 누구도 체험해본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 구간을 대대가 맡기로 결심하였다.》

단 몇줄로 씌여진 기록이지만 거기에는 돌격대원들이 지닌 불타는 애국의 열정이 비껴있다.

물길굴뚫기를 진행하는 려단이 처음으로 맞다들린 붕락구간이였다. 어느 대대에 맡길것인가. 려단지휘관협의회는 인차 끝났다. 한것은 만경대구역대대가 붕락구간극복전투를 자기들에게 맡겨줄것을 열렬하게 제기하였던것이다.

수십m, 길지 않은 그 구간을 한치한치 열어가던 나날에 얼마나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수놓아졌던가. 자기는 떨어지는 돌에 부상을 당하면서도 동지를 구원한 대원도 있었다. 짐이 실리면서 애써 드리운 동발들이 부러져나가고 또다시 버럭사태가 쏟아져내렸을 때 동발을 안고 선참으로 뛰여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호건, 박태욱동무들을 비롯한 대대지휘관들이였다.

《동무들, 이만한 난관을 뚫지 못한다면 우리를 어찌 만경대땅에서 달려나온 아들딸들이라고 부르겠는가. 만경대고향집앞에서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자!》

희천땅에 달려나오기에 앞서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앞에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그리며 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떨칠 심장의 맹세를 다진 그들이였다.

지휘관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돌격대원들이 저저마다 따라섰다. 그들은 붕락구간극복전투를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념원하신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결사전으로 받아들였다.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붕락구간을 극복한 그들은 그기세로 기본물길굴뚫기에서도 려단의 앞장에 섰다. …

거창한 발전소건설장에서 온갖 난관을 이겨내며 그들을 승리자로 되게 한 비결은 다름아닌 사상의 힘, 정신력이였다.

대대시공참모 안성일동무가 이악하게 기술을 배워 첫 착암을 하던 날이였다. 뜻밖에 작업장에는 만경대구역에서 살고있는 머리희슥한 전쟁로병인 아버지가 나타났다. 굴뚫기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아버지는 작업장을 뜨지 않고 돌격대원들의 일본새를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었다. 전쟁로병은 작업장에 꽂혀있는 대대기발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만경대〉라는 저 글발이 새겨진 붉은기를 바라보면 절로 힘이 샘솟는것 같소.》

그것은 태양의 성지 만경대를 빛내이려는 불같은 마음과 열정이였다.

만경대라는 그 부름앞에서 자기도 알수 없는 힘을 얻군 한다고 하는 녀성돌격대원 김정화동무의 진정의 목소리,

거기에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마음안고 물길굴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문기남, 권철준, 정금철동무들의 목소리도 울리고있다. 대원들속에서 《어머니》로 불리우는 처녀돌격대원인 취사원 김혜영동무의 가슴속에도, 기준소대답게 대대의 앞장에서 혁신하고있는 리정민, 김현성동무들을 비롯한 1소대전투원들만이 아닌 대대의 모든 돌격대원들의 심장도 그렇게 불타고있다.

빛나는 위훈속에는 돌격대원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걸음걸음 힘껏 떠받들어주고있는 만경대구역당 책임일군들과 구역안의 일군들, 인민들의 헌신의 마음도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김 호 혁

《조선의 특색을 살린 가극, 완전무결한 작품》

가극 《홍루몽》을 관람한 장춘시의 인사들 격정 토로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시 동방대극원에서 가극 《홍루몽》공연을 진행하였다.

길림성과 장춘시의 당, 정부 간부들이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극장은 련일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길림성당 서기 손정재는 공연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래와 무용, 무대미술 등이 다 멋있다. 이런 공연은 처음 본다. 공연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몰랐다.

길림성은 김일성주석께서 혁명투쟁을 벌리신 뜻깊은 고장이다.

우리 길림성사람들은 조선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품고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왔는데 모두가 크게 감동되였다. 객석에 관중이 꽉 차고 그들의 반영이 대단한것은 공연이 완전히 성공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앞으로도 조선예술인들이 길림성에 자주 와서 공연하기 바란다.

길림성문화청 청장 림군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치였다.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다.

길림성은 조선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있으며 문화교류를 많이 하고있다.

피바다가극단은 중국인민이 사랑하는 《홍루몽》을 가극으로 훌륭히 형상하여 무대에 올렸다.

황홀한 공연은 중조 두 나라사이의 문화교류와 전통적인 친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장춘시민들에게 공연을 보여준 조선예술인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공연을 통하여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술이 있어야 문화시장이 더 넓어지고 활력에 넘치게 된다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조선예술인들이 바로 이런면에서 우리에게 많은것을 깨우쳐주었다.

길림성문화청 부청장 사문명은 공연은 참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격정을 피력하였다.

길림성의 예술전문가들대부분이 공연을 보았는데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공연도중에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가 계속 요란한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장춘시의 력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공연관람을 통하여 많은것을 배웠다.

국가1급배우이며 안무가인 왕월홍은 이미전에 《홍루몽》에 대한 월극, 영화, TV극 등을 보았다, 조선예술인들이 형상한 가극 《홍루몽》은 참으로 이채롭다, 무용장면이 많은데 정말 아름답고 황홀하다, 가극의 무용종목들은 교범이라고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길림대학 교수 은곤은 가극 《홍루몽》공연은 그야말로 대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배우들의 연기수준이 나무랄데 없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훌륭한 음악적형상으로 하여 《홍루몽》의 감정세계에 깊이 빠져들었다. 무대전환속도가 빠르고 무대미술과 의상이 진실하고 생동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보는것 같았다.

나는 이전에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도 보았는데 조선가극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할수 없다.

조선의 가극예술은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되고있다.

한편 《길림일보》, 《장춘일보》, 《장춘만보》, 길림성위성TV방송, 장춘시TV방송 등은 피바다가극단의 장춘도착과 공연준비, 시연회, 공연진행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도시만보》 7월 2일부는 《조선가극 〈홍루몽〉 장춘에서 첫 공연 진행, 저도모르게 〈대관원〉의 세계에로 끌려들어간 관중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생동하고 실감있는 공연과 화려한 무대미술, 심금을 울리는 음악효과는 관중을 대관원의 세계에로 이끌어갔다.

공연이 시작되기 1시간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줄지어 왔으며 관람석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조선판가극 《홍루몽》은 원작의 내용을 철저히 존중하였다.

이것은 조선예술인들이 중국고전명작에 대해 깊은 리해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판가극 《홍루몽》은 관중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훌륭한 예술을 향유할수 있게 해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극세계에 깊이 빠졌던 관중은 저도모르게 박수와 찬탄을 터뜨렸다.

《신문화보》는 《조선의 민요창법, 고전명작의 내용을 훌륭히 환원》이라는 제목의 관평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공연은 관중을 꿈같은 극의 세계에로 이끌어갔으며 그들이 커다란 감흥속에 극중인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게 하였다.

조선신인배우들의 성악기교와 연기형상은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그들은 독특하고도 민족적색채가 짙은 음색으로 원작의 내용을 재현하였다.

무용장면도 그야말로 흠잡을데 없는 명장면이다.

조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중국의 맛을 잃지 않은 가극, 이처럼 가극 《홍루몽》은 완전무결한 작품으로 인정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관람석에서는 우렁찬 박수소리와 《훌륭하다.》라는 탄성이 오래도록 그칠줄 몰랐다.

【베이징발 조선중앙통신】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긍지

신천군 우룡협동농장 김인복동무의 가정을 두고 사람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그의 가정에는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맏아들이 부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이 모셔져있다. 이 기념사진은 가정의 자랑, 농장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김인복동무는 늘 기념사진을 우러러보면서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며 알곡생산성과로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정 수

생산공정을 현대화한 보람

평양곡산공장 식료품종합직장에서

평양곡산공장 식료품종합직장의 생산공정들이 CNC화되여 맛좋은 당과류들이 폭포처 쏟아져나오고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사탕, 과자들이 벌써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돌격대원들에게 가닿고 시안의 백화점들에 공급되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짧은 기간에 완성한 당과류생산공정의 CNC화에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혁명을 힘있게 벌려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려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이며 당의 의도입니다.》

지난해 12월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시대 맛이 나게 일신된 식료품종합직장에도 들리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계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제품들을 보시고 직장에서 생산공정의 CNC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우리의 사탕, 과자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당과류를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겨안은 직장의 일군들은 그날 저녁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그들은 깊은 생각속에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동무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더 많은 땀을 흘립시다.》

정적을 깨뜨리며 부문당비서 정영희동무가 나직이 말하였다.

식료품종합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달라붙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의 유능한 교원, 연구사들을 공장에 파견해주시였다. 장군님께서 달아주신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펴고 그날부터 온 직장에는 뜨거운 격정속에 CNC열풍이 휘몰아쳤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평양곡산공장에서 최첨단을 돌파하자!

이런 높은 목표와 지향을 안고 과학연구집단은 기계들의 설계, 제작, 그에 따르는 프로그람개발을 맡아안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제일 어려운것은 김일성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맡은 알사탕생산공정의 CNC화였다.

승찬길교원의 지도밑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알사탕생산공정의 련동시험을 진행하였다.

실패 또 실패…

그러나 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된다는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고 공장기술자들과 연구집단의 서로의 지혜를 합쳐나갔다. 몰려오는 피곤을 무릅쓰고 부르튼 입술을 감빨며 그들은 이악하게 노력하여 끝내 알사탕생산공정의 CNC화를 완성하고야말았다. 성공의 그날 생산공정이 CNC화된 기계들에서 줄줄이 쏟아져나오는 알사탕, 백합과자, 기름사탕 등 당과류들을 보며 온 직장이, 온 공장이 기쁨으로 들끓었다.

원료투입으로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이 CNC화된 직장에서 사탕, 과자를 비롯한 당과류가 폭포처럼 쏟아져나오는것을 보면서 이곳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 현실로 꽃핀 강성대국의 그날을 그려보았다.

《우리는 앞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앞장서는 직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직장장 김준모동무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평양곡산공장 식료품종합직장에서는 오늘도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맛좋은 당과류들을 인민들에게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오 은 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개선청년공원 본사기자 정 순 애 찍음

6.15의 기치밑에 민족대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의 정당, 단체들은 련합성명을 발표하여 북남공동선언을 지지옹호하는 사람들과는 소속과 정견, 과거에 구애됨이 없이 손잡고나가며 그를 부정모독하는자들은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것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짓부시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함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기어이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의 반영으로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오늘 6.15의 기치밑에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전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는것은 반통일세력의 분렬과 대결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로 나서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우리 겨레의 간절한 념원과 기대에 어긋나는 심각한 사태가 조성되고있으며 6.15의 위업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편승한 남조선괴뢰패당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였고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으로 짙어가고있다. 하여 오늘 우리 민족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워 6.15의 위업을 고수하고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외세와 그 주구들에 의한 핵전쟁의 참화를 강요당하느냐 하는 엄혹한 갈림길에 서게 되였다.

평화냐 전쟁이냐,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서는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떨쳐나서야만 이룩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며 전민족대단결은 그 실현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통일을 지향하는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통일문제의 근본성격과 현실의 요구,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온 민족이 굳게 뭉쳐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그것을 유린하는것은 곧 북남합의를 위반하고 내외여론을 거역하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북남선언들을 지지하고 옹호고수하며 리행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며 리행을 방해하는자는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이다.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를 지닌 해내외의 각계각층 겨레는 누구나 할것없이 북남선언들을 지지옹호하고 리행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한몸바쳐나서야 하며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뛰여넘어 단합하고 련대련합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6.15를 지지하는 남조선과 해외의 그 어떤 정치세력이나 단체,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만나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해결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6.15공동선언을 헐뜯고 그에 배치되게 행동하는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

지금 리명박패당은 북남관계를 이전 군부독재《정권》때와 같은 전면적인 대결,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역적패당은 6.15공동선언의 민족사적의의와 그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의 모든 성과들을 부정하면서 반공화국대결전쟁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여 과거의 대결시대를 되살리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역적패당은 저들이 꾸며낸 특대형사기극인 함선침몰사건을 유엔에 끌고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와 압력을 더한층 강화하려고 꾀하는 한편 6.25를 계기로 반공화국대결광대극들을 대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날로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다.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대결책동을 짓부시지 않고서는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지켜낼수 없고 6.15통일시대의 고귀한 성과들도 고수할수 없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의 전진을 기대할수 없다. 침략적인 외세와 한짝인 리명박패당의 반통일대결전쟁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는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는 길이 있다. 온 민족은 비타협적이며 견결한 투쟁으로 북남선언들을 반대해나서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이 투쟁에서는 정견과 신앙, 소속의 차이가 있을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이 따로 있을수 없다. 각계각층 통일운동세력은 반통일세력의 리간, 와해, 탄압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해나가야 한다. 남조선의 진보세력들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승리한 기세로 민족을 반역하는 보수패당에게 파멸을 안기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온갖 재난의 화근이고 통일의 원쑤인 역적패당을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야 한다.

6.15통일시대의 앞길에 시련은 겹쌓여도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는 결코 꺾을수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단결된 힘으로 신심드높이 싸워나가는 우리 민족에게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조 남 수

군사적충돌을 노린 계획적인 도발소동

함선침몰사건을 기화로 벌어지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이 폭발직전의 상황에로 치닫고있다.

얼마전 괴뢰호전광들은 오는 10월 부산항과 그 주변해역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관련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공표한데 이어 그 준비를 분주히 다그치고있다. 한편 괴뢰인권위원회는 그 무슨 《북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운운하며 삐라살포, 확성기방송, 대형전광판운영 등을 통한 《대북심리전》을 재개할것을 당국에 《권고》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에 군사적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도화선으로 하여 끝끝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책동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훈련이라는것이 그 무슨 《대량살상무기의 전파》를 막는다는 구실밑에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련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해상 등으로부터 무력으로 봉쇄하고 압살하기 위해 벌리고있는 극히 도발적이며 위험한 전쟁연습이라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그에 가담하는것이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쌍방사이의 무장충돌을 야기시킬수 있는 분별없는 모험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괴뢰들의 전면참가를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립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상봉쇄와 차단을 목적으로 한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을 벌려놓으려 하는것은 군사적충돌과 북침전쟁도발을 서슴지 않으려는 극히 위험한 흉계의 발로로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이번에 괴뢰인권위원회가 허위와 비방, 궤변으로 일관된 《대북심리전》의 재개를 당국에 《권고》한것도 극히 무분별한 행위이다. 그것은 우리의 체제와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다.

괴뢰들의 《대북심리전》은 우리 인민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악의에 차서 비방하고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미화분식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비렬한 모략선전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정신력에 저해를 줌으로써 북침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는것이 역적패당의 속심이다.

보수패당이 이른바 《인권위원회》라는것을 내세워 《대북심리전》재개를 《권고》하는 소동을 벌리게 한것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완강히 반대해나서는 남조선 각계의 목소리를 눌러놓고 저들의 범죄적망동에 명분을 세워보려는 책동이다. 이것은 괴뢰들이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는 아랑곳없이 반민족적인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북남사이에 무장충돌을 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역적패당이 꾸며낸 함선침몰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놓여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건드리는 사소한 도발이나 한방의 총성도 삽시에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이런 첨예한 시기에 리명박패당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관련 해상차단 및 검색훈련과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재개를 거리낌없이 시도하는것은 북침전쟁도발을 작정한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를 낼수 없는 망동이다. 이로써 괴뢰들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조금도 바라지 않으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사태를 어떻게 하나 전쟁국면에로 끌고가려고 미쳐날뛰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런 역적들이 살아숨쉬는 한 북남관계개선은 고사하고 핵전쟁밖에 터질것이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우리를 무력으로 해치려고 발광하는 괴뢰패당에게는 그 어떤 자비와 인내도 필요없다.

괴뢰들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전면참가와 《대북심리전》재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이미 경고한바대로 무자비하며 단호할것이다. 그로 하여 빚어지는 모든 파국적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리명박역적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역적패당은 만일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분별없이 날뛴다면 무서운 피멸적후과가 초래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허 영 민

반공화국모략소동중지를 요구, 미군철수를 주장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영국과 스위스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6월 26일 성명에서 미제가 남조선괴뢰군과 함께 1950년 6월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을뿐아니라 여기에 15개 추종국가군대를 끌어들이고 화학무기와 세균무기를 마구 사용하였으며 지어 원자탄을 투하할 흉계까지 꾸민데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폭로하고 그러나 미제는 전쟁에서 저들의 야욕을 실현할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전쟁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완전한 날조극인 《천안》호침몰사건까지 조작하였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을 당장 중지할것과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6월 23일 공동성명에서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를 제패할 야망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경위에 대하여 상기시키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은 전쟁발발에 대한 저들의 책임을 덮어버리기 위해 《남조선에 대한 북의 공격설》을 날조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범죄적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들이 조선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침략자라는것이 세계면전에서 드러났다.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60년전의 정세를 방불케 하고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일**원수께서 령도하고계신다.

우리는 제2의 조선전쟁을 반대한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만세!

한편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에서도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2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의 침략책동으로 하여 그 어느때보다 첨예화되고있다. 조선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에는 새로운 무장충돌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남조선괴뢰당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벌리는 전쟁깜빠니야와 그로 인한 일촉즉발의 정세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체결의 절박성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 나라를 통일하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수많은 방안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2000년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채택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혀준 력사적사변이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는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위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언하면서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를 통일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되고 남조선에서 외국무력이 철수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군은 남조선에서 물러가라!

공동불레찐 발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브라질준비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에서 6월 24일 공동으로 불레찐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명분없는 주둔, 〈흰독수리〉는 제 집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올해 6월 25일은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한지 60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 국장에는 왼발에는 전쟁을 상징하는 화살을, 오른발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가지를 쥐고있는 독수리가 새겨져있다. 이것을 놓고 세계 많은 사람들은 평화의 너울을 쓴 침략과 전쟁의 상징물이라고 말하고있다. 이 독수리가 제일 오래동안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남조선이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세기를 이어 60년을 넘기였다.

무엇때문에 미군은 그렇게도 오래동안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것인가?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자마자 미군은 《해방자》, 《구원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진주하였다. 그때로부터 몇년후 미국은 전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전쟁을 일으켰으나 심각한 패배만을 당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협정체결후 3개월만에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협의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직후 남조선괴뢰들과 남조선 미국《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법화》하였다.

오늘 공정한 세계여론은 세기를 이어가며 지속되고있는 미군의 남조선주둔에 반기를 들고있다. 미국이 내들었던 모든 명분들은 그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하고있다. 누구나 명백히 말하듯이 미국이 그토록 집요하게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추구하고있는 원인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반도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패권을 쥐는데서 전략적요충지로 되는데 있다.

미국의 끝없는 지배욕으로 하여 반만년을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온 단일민족이 60년이상이나 둘로 갈라져사는 비극이 초래되였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은 단순한 외국군대의 주둔이 아니라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 식민지지배이다. 미국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부문에 시시콜콜 참견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극구 방해하고있다. 남조선주둔 미군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현지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미군이 남조선에 남아있는 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는것이 세인의 공통된 견해이다. 력사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국제사회계는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여 우리 행성을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저들의 군대를 시급히 철수시켜 조선반도에서 랭전의 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것이 인류의 목소리이다.

침략과 전쟁의 상징 독수리는 제집으로 돌아가라!

【조선중앙통신】

문화재를 략탈한 미제침략군의 죄행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6.25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이 서울의 덕수궁에서 략탈해간 리조시기의 왕실유물들이 최근 미국에서 무더기로 경매에 붙여져 론난이 일고있다.

지난 5월 11일 미국 미시간주의 경매장에 나온 많은 량의 미술품이 덕수궁에 있던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매장에 나온 왕실유물들은 미술품뿐아니라 가구, 장식품, 도자기 등 130여점이며 그중 대다수가 이미 팔렸다 한다.

특히 경매물들중에는 19세기말 조선봉건정부가 최초의 지폐발행을 위해 만든 동판이 있는데 그 력사적가치는 대단히 큰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당시 화폐발행용동판은 모두 4개 종류로 되여있었으며 그중 2개 종류가 어디론가 사라졌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것이다.

경매장에 나온 유물들에는 지난 6.25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군이 1951년 덕수궁에서 빼내온것이라는 설명문까지 버젓이 붙어있었다 한다.

방송은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실제로 전쟁때 미군의 조선문화재략탈은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그때 얼마나 략탈되였는지, 그중 얼마를 찾았는지, 찾은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있는것이라고 전하였다.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이 땅에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수백만명의 조선인민을 무참히 학살하다 못해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물까지 도적질해다가 오늘날 경매장에 내돌리며 민족의 넋을 우롱하는 미제의 죄행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진보련대 성원들에 대한 파쑈적폭거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경찰이 1일 《보안법》위반혐의로 체포한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충목과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옥, 이전 정책위원장 정대연에 대한 구속령장을 청구하였다.

파쑈경찰은 그들이 북과 여러차례 접촉을 가지고 《지령》을 받아 맥아더동상철거투쟁, 반미집회 등을 주도하였다고 트집잡으며 탄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언론로조 총파업에 돌입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언론로조 《KBS》본부가 1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단체는 파업공문을 통해 임금인상 등과 관련한 단체협상을 결렬시킨 업주측에 항의하여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파업기간 로조원전원이 취재, 편집, 록화, 방송 등 모든 업무를 중지할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친미역적의 역겨운 추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웅덩이물을 다 흐린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그대로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현인택역도가 이번에는 친미사대광증을 드러내면서 꼴사납게 놀아대여 민족을 망신시키고있다.

얼마전 현인택은 조선전쟁시기에 황천객이 된 한 미제침략군 장교의 《동상제막식》이라는데 나타나 《추모사》니 뭐니 하는따위의 해괴한 놀음을 벌려놓았다. 6.25를 계기로 벌어진 이 불순한 모임에서 역도는 그 무슨 《참전용사의 희생》이니, 《잊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낯뜨겁고 역겨운 넉두리를 늘어놓았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추태가 아닐수 없다.

문제의 미군장교로 말하면 일제강점시기에 벌써 《선교사》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 땅에 기여들어 침략의 길잡이노릇을 한 제 애비의 영향을 받아 코흘리개시절부터 조선민족을 노예화하고 지배할 야망을 키운자였다고 한다. 이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개꿈을 실현해보려고 해방후 조선침략의 2세로 남조선에 기여들었으며 전쟁때에는 희세의 살인마로 악명높은 맥아더의 보좌관노릇을 하다가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에 의하여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조선전쟁이 도발된 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온 조국땅을 페허로 만들고 무고한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대량학살한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피맺힌 원한은 오늘까지도 가셔지지 않고있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지난 전쟁시기에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민간인학살만행에 대한 력사적사실자료들이 련속 발굴되고있으며 이로 하여 미국에 대한 각계의 증오와 울분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런데 현인택이 그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침략자의 개죽음에 대해 감히 《희생》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았으니 미제살인마들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인민들이 그것을 보았다면 아마 당장 무덤을 차고 일어나 역도의 뺨을 쳤을것이다.

더욱 참을수 없는것은 미제침략군 장교의 동상앞에서 처량한 눈물을 쥐여짜던 역도가 갑자기 살기띤 표정으로 돌변하여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처》니 뭐니 하고 또다시 우리를 걸고든것이다. 결국 현인택역도가 미제침략군 장교의 《추모》놀음판에 나타난것은 미국의 피비린 조선침략전쟁력사를 극구 찬미하고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며 북침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제2의 6.25를 몰아오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자는 속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현인택은 역시 외세를 하내비로 섬기면서 동족대결야망만 실현할수 있다면 온 민족을 침략자의 전쟁아구리에 통채로 떠밀어넣는 반역질도 서슴지 않는 특등매국노, 극악한 대결광신자이다. 남조선에서 명색이 《통일부》라는것이 동족대결의 란무장으로 완전히 변하고 북남관계파탄과 북침전쟁도발의 제일선에 나서서 온갖 못된짓을 다하고있는것도 바로 현인택과 같은 매국역적이 틀고앉아 제세상처럼 날치고있기 때문이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고 북남관계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현인택역도는 지금 제가 지은 죄악으로 해서 남조선 각계로부터 저주와 규탄을 받고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몰라 안절부절을 못하고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는 동네북신세가 된 역도가 오죽 바빴으면 죽은 송장의 망령까지 부둥켜안고 동족대결을 념불외우듯 하겠는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이자의 추태를 보며 사람들은 민족을 등진 가련한 역적의 말로를 생각하고있다.

남조선에 아직 이런 매국역적이 살아숨쉰다는것자체가 민족의 수치이다.

현인택이 오래전에 황천객이 된 미군장교에 대한 《추모》놀음까지 벌려놓고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선동하였지만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에게 화만 몰아오는 매국역적에게 침을 뱉고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을 업으로 삼고 지금까지 지은 죄악만으로도 현인택은 온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피할수 없다.

본사기자 박 철 준

비참한 운명에 처한 《세종시수정안》

《한나라당》이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제출한 4개의 《세종시수정관련법안》이 지난 6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데 이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마저 부결되고말았다. 보수패당이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해 립증된 남조선민심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수정안》의 《국회》표결처리를 시도하며 무리하게 벌린 놀음이 끝내 파탄된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괴뢰국무총리 정운찬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세종시원안》의 수정을 떠들며 10개월동안 강행해온 《세종시수정안》에 강한 제동이 걸리고 리명박《정권》의 주요대내정책의 2대기둥의 하나가 무너지게 되였다. 이것은 응당한 결과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집권세력은 《지방자치제선거》이후 《반성》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지만 반역적본성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만하게도 《정책추진에는 변화가 없다.》고 고아대면서 《세종시수정안》과 《4대강정비사업》을 비롯한 반역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기도를 드러냈다. 6월 14일 리명박역도는 그 무슨 《TV 및 라지오연설》이라는데서 《세종시문제는 백년대계》라느니 뭐니 하고 《세종시수정안》을 극구 정당화하면서 그와 관련한 《법안》들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는 아랑곳없이 반역정책들을 우격다짐으로 내밀려는 역적패당의 실로 독선적인 망동이였다.

《세종시수정안》과 관련한 《법안》들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였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반역패당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아 좀처럼 처리되지 못하였다. 더우기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세종시수정안》과 《4대강정비사업》을 비롯하여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반역정책들에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가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문제의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로골적인 압력을 가한것이다. 괴뢰집권자의 지령이 떨어지기 바쁘게 《청와대》와 《한나라당》것들은 야당들이 리명박의 《요청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세종시수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분주탕을 피우기 시작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세종시수정안》과 관련한 집권자의 발언에 대해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준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를 반대하였지만 보수패당은 막무가내였다. 이렇게 되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였지만 결과는 보수패당의 기도와는 정반대인 부결이였다.

일이 이쯤 되였으면 《한나라당》것들은 늦게나마 저들의 망동에서 교훈을 찾고 《세종시수정안》을 포기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반역패당의 《세종시수정안》처리시도는 실로 검질긴것이였다. 보수패당은 《법안》이 부결된 다음날 아침 《고위당정회의》라는것을 열고 《주요사업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여 조속히 표결처리하자는 꿍꿍이속이였다. 괴뢰국회법에 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다시 제출하려면 《국회》의원 30명의 발의가 필요한데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이것을 코에 걸고 문제의 《법안》들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킬 심산밑에 자기 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놀음을 벌려놓았다.

이에 대한 남조선정계의 반발은 강했다. 민주당은 《세종시수정안》의 《국회 본회의》상정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면부정하는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당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하겠다는것은 〈국회〉운영절차와 민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탄하면서 단호히 막아내겠다는 립장을 표명했다. 《한나라당》내의 《세종시수정안》반대파인 친박계(박근혜파)의원들도 《국회 본회의》표결처리는 민중에게 오만하다는 인상만 줄뿐이라면서 그것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대립구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자기 당소속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문제의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하나 처리하려고 발악하였다. 그야말로 민심을 무시하는 고질적인 독선과 강권기질의 극치가 아닐수 없었다.

그러한 속에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수정관련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였는데 예견했던바 그대로 《한나라당》내에서 적지 않은 《반란표》가 나옴으로써 결국 《법안》들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였다. 이와 함께 《세종시수정안》에 대한 반역패당의 개꿈도 하늘로 날아났다. 해외행각중에 이 소식을 들은 리명박역도는 《유감스럽다.》느니 뭐니 하고 우는소리를 늘어놓았다. 《한나라당》대변인이라는자도 《아쉬움》이니 뭐니 하고 한숨을 내쉬며 패배를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세종시수정안》의 비참한 운명은 곧 역적패당의 운명이다.

《국회》표결이 끝나자 야당들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즉각 《세종시수정안》을 걷어치우고 세종시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기세를 올리고있다. 하지만 보수패당은 말로는 《국회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분을 삭이지 못해 끙끙 앓고있다. 인민을 기만우롱하는데 이골이 난 보수패당이 《대운하계획》이 민심의 강력한 반대배격을 불러일으키자 《4대강정비사업》으로 슬쩍 간판을 바꾸어 강행추진하고있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들이 《세종시수정안》을 과연 포기하겠는가 하는것은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명백한것은 남조선인민들이 민심을 거역하는 집권세력의 망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는 사실이다. 얼마전의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한 기본원인의 하나도 보수패당이 오만하게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거스르면서 반역정책들을 강행추진한데 있다. 리명박일당이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세종시수정안》을 그 어떤 위장술책으로 다시 강행하려 할 경우 그것은 수습할수 없는 파국적후과를 낳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군부독재자들이 《직선제개헌》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짓밟고 로태우역도를 《대통령후보》로 내세웠다가 6월인민항쟁의 불길에 휘말려 결국 인민들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수 없었던 사실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리명박패당이 민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강권과 전횡에 매달린다면 인민들은 역적무리들에게 최후의 파멸을 안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은 정 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떨치는 조선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 에쓰. 제. 우말라또바와 부위원장 샤슈비아슈빌리, 적도기네민주당 부총비서 후안 느꼬므불라와 국제부장 발렌띠 엘라마예, 기네통일진보당 전국정치국 위원인 당중앙위원회 비서 뎀바 까마라 등 해당 정당 지도부성원들, 방글라데슈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라쉐드 칸 메논,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서기장 라기브 아흐싼 문나가 6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가장 큰 영광이고 행복이다.

최근 《천안》호사건을 조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조선인민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야말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적도기네민주당 부총비서는 조선인민과 함께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나라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로동당이 거두고있는 빛나는 승리는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기념집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기네, 핀란드에서 6월 11일과 13일에 집회가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기네예술 및 문화성,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기네 **김정일**주의연구소조, 주체문학사상연구회, 기네조선친선협회,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들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기네예술 및 문화상 포데바 케이라 이스또는 **김정일**령도자께서 1964년 6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지난 40여성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반석같은 토대를 마련하고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떨치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력사를 펼쳐놓으신 절세위인의 영웅서사시로 빛나고있다.

실로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은 모든 나라 당과 국가건설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기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바누케이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 당과 군대, 국가에 대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펼치시는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그이를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기네인민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다.

뜻깊은 기념일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김정일**령도자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한누 하르유는 조선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정치적간섭과 전쟁위협을 물리치고 나라의 안전과 사회주의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정의의 보검이라고 격찬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2012년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글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국제기구와 에티오피아, 민주꽁고출판보도물이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는 6월 8일 《인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근 반세기를 헤아리는 **김정일**령도자의 당령도사는 인민을 진정으로 위하시는 참다운 정치가의 풍모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애국도 나오고 혁명도 시작된다, 사회주의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덕정치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령도자의 정치관이다고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숭고한 위업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가장 큰 락으로 여기시는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체질화한 인민적령도자의 전형이시라고 글은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신문 《데일리 모니터》 6월 9일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산에 계시는 사진을 모시고 《**김정일**각하와 불패의 조선로동당》이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을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조직사상적결정체로 만드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시였다.

그이의 특출한 령도력에 의해 조선에는 당과 천만군민의 혼연일체라는 세계정치사상 류례없는 현실이 펼쳐졌다.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신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필승불패의 당으로 위용떨치게 될것이다.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 6월 10일부도 《필승불패의 조선로동당》이라는 표제밑에 《지도사상이 투철한 당으로》, 《전당이 일심단결된 당으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으로》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브라질, 수리아, 말따인사들이 6월 16일과 18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 보좌관 뻬드로 데 올리베이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조선로동당이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도록 이끄신데 대하여 격찬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들은 1950년대에 조선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나 조선의 군대와 인민앞에 맥을 추지 못하였다.

오늘도 조선을 반대하는 미제의 도발책동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천안》호침몰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날조극이다.

이 사건은 미국이 오끼나와현에 있는 후멘마미군기지이설문제에서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며 《지방자치제선거》와 관련하여 남조선《정부》를 옹호하기 위한 방패였다.

조선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사건의 진상은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고있는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자기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베르 발룰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리익과 념원,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이끌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당을 백방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여기에 어렵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조선이 승리만을 이룩할수 있은 기본요인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천재적인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을 지니신 **김정일**각하께서 계시고 당과 군대와 인민이 완벽한 혼연일체를 이루고있기에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언제나 승리만을 거두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의 조국통일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고 말하였다.

말따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빅터 데쥐오바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은 당사업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반공화국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지만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그 무엇으로써도 꺾지 못할것이다.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대강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할것을 남조선당국자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리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핵억제력강화는 천만번 정당하다

최근 미국이 비밀해제한 국가문서들에서 1969년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때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미국방성은 핵무기로 우리 나라의 주요지역과 비행장 등을 공격하는 작전안을 작성하여 백악관에 제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에 의하면 조선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에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과 중국동북지역의 여러곳을 핵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였었다.

이러한 계획들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핵전쟁의 시작과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전내용들이 구체화되여있다. 한마디로 비밀해제된 미국의 국가문서들은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발전시켜왔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미제는 지금까지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을 위한 여러가지 작전계획들을 세우고 실현하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들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패한 직후인 1953년 11월에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극비작전계획 《8—53》을 작성한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960년대에는 북침을 위한 《핑크루트작전계획》이 작성되였다. 그에 따라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등이 우리 나라 령역에 기여들었었다. 1970년대, 1980년대에도 이와 류사한 작전계획들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미제는 1990년대에 우리 공화국을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계획 5027》을 만들고 그것을 부단히 갱신해왔다.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예견한 《신작전계획 5026》, 그 누구를 《동요와 붕괴에로 유도》한다는 《작전계획 5030》 그리고 《작전계획 5029—05》, 《작전계획 8022—02》 등이 그런것들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배치되여있는 핵공격수단들은 미제의 북침핵전쟁전략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남조선에 배비한 미국의 핵무기는 1970년대 중엽에 벌써 1 000개를 넘어섰다. 비핵국가와 지역에 핵무기를 반입할수 없다는 국제적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수는 계속 늘어났다. 1997년 일본 오끼나와미군기지에 있던 우라니움탄을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 배비한것은 그 단적증거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위한 지휘체계완성을 오래전부터 다그쳐온 미제는 대구, 오산 등 지역을 제1선 핵전쟁지휘기지로 꾸려놓았다.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군부대들은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분내에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도록 항시적인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지휘권한은 현지 미군사령관들이 가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지난 4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를 핵무기불사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은 핵위협을 일삼아온 이전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달라진것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북침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몇달전 남조선에서 있은 대규모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도 북침을 위한 미국과 괴뢰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의 연장선에서 감행되였던것이다. 미제호전광들은 남조선에서 대규모군사연습을 또다시 벌리려고 획책하면서 기동타격무력의 이동전개를 다그치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다치면 터질듯 한 초긴장상태에 처해있다.

력사적사실들과 오늘의 현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는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보유한것은 당당한 자위권행사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철두철미 자위적인것으로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조선반도와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이 터지지 않은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막강한 전쟁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자위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권리이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갖추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도발위험이 현실화되고있는 오늘의 정세의 요구이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이다.

미국호전세력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걸고 반공화국핵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언제 어느 시각에 미제의 핵공격을 받을지 모른다.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심각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고있다.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는데 필요한만큼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보다 튼튼히 해나갈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행사해나갈것이다.

김 종 손

전체 인민의 단결을 호소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6월 23일 한 담화석상에서 전체 인민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이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하면서 미행정부의 낡아빠진 반이란선전은 한갖 무모한짓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이란인민이 하나로 뭉쳐 미국의 반이란내부와 해책동에 과감히 맞서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

레바논수상 싸아드 하리리가 최근 한 외교석상에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를 적극 지지하면서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규탄배격받는 이스라엘

▲에짚트외무상 아흐마드 아부 알 게이트가 6월 21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팔레스티나피난민문제의 책임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땅을 강점한 때로부터 살 곳을 찾아 떠난 팔레스티나피난민들의 수는 700여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피난민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국제공동체가 유태복고주의정권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여 적극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마로끄외무 및 협조성이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꾸드스의 동부지역에서 20여채의 팔레스티나인살림집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도시의 이슬람교적인 지위를 변경시키기 위한 비렬한 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동부꾸드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태화》책동을 끝장내기 위해 시급한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 아미라가 6월 24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외무상의 망발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외무상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재개할것이라고 떠벌인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접수될수 있는 정치적해결방도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유태인《정착촌》건설재개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협상을 파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뛰르끼예에서 이스라엘의 살인만행을 규탄하여 시위

큰물피해

로므니아의 보또샤니도와 쑤챠바도에서 6월 29일 무려 기비가 내려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약 2 000명의 주민들이 소개되였다.

폭우피해 확대

브라질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로 6월 29일현재 사망자수는 57명으로 늘어났으며 69명이 행방불명되였다. 또한 15만 7 000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였으며 4 400㎞의 도로와 140여개의 다리가 파괴되였다.

고온현상

쿠웨이트에서 최근 며칠동안 고온현상이 계속되고있다. 6월 21일 이 나라 한 신문은 사막지대에서 기온이 54℃까지 높아졌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기상관측이래 최고기록이라 한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곤경에 처한 미국의 《반테로전》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을 교체하였다. 맥크리스톨이 밀려나고 페트라우스가 그자리에 임명되였다. 미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 대중보도수단들은 그에 대해 제나름대로의 분석과 추리를 해가며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여기에서 일맥상통하는것은 이번 조치가 곤경에 빠진 미국의 《반테로전》과 그로 하여 골머리를 앓고있는 오바마의 고충을 보여주는것이라는것이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사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직에서 해임된 맥크리스톨로 말하면 오바마가 내놓은 아프가니스탄전략의 주요작성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오바마의 구상과 제안이라면 덮어놓고 지지하며 비호해나섰다. 오바마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맥크리스톨을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그가 요구하는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들어주었다. 지난해 맥크리스톨이 무력증파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내부의 압력을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무력을 증파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맥크리스톨에 대한 신임의 표시였다.

그런데 그가 오바마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동을 저질렀다.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전략에 대한 비난을 쏟아놓았던것이다. 그는 어느 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바마의 철군시간표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무력증파에 대한 자기의 요구를 무시하고있다고 시비하여나섰다. 지어 그는 자기의 심복부하들과 함께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전략에 관여하고있는 고위인물들을 《어리광대》, 《상처입은 짐승》 등으로까지 혹평하였다.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아프가니스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오바마의 불편한 심기를 크게 건드려놓았다.

골이 난 오바마는 맥크리스톨을 호출하여 추궁하고 물러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맥크리스톨은 마치도 기다리기나 한것처럼 순순히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자리에서 물러났다.

하다면 맥크리스톨과 그의 부하들이 왜 그러한 발언들을 늘어놓아 스스로 화를 청했는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언제부터 소멸한다고 하던 탈리반세력은 도리여 더욱 강화되고 미군과 나토군의 사상자수는 나날이 기록이 갱신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미국인들은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전략에 대한 비난을 로골적으로 퍼붓고있다. 미국회에서 거물급이라고 하는 맥케인을 비롯한 공식인물들은 병력증파를 골자로 하는 아프가니스탄전략이 현지의 실태와 군사전략에 기초한것이 아니라 순수 정치적목적을 노린것이라느니, 미군철수시간표까지 정해놓은것은 큰 실책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오바마가 책임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이 글렀다는것은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고있다. 이런 형편에서 아프가니스탄전쟁패배책임에서 벗어나려는 맥크리스톨과 그의 심복부하들의 심리가 이번에 작용하였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다시말하여 승산이 보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그들이 우정 오바마를 자극하였다는것이다.

일이 어떻게 되였든지간에 이번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전략을 둘러싼 행정부와 군부사이의 의견상이와 내부분렬 등으로 미국의 《반테로전》이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런데도 미당국자들은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교체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이 호전될수 있다는 소리를 외워대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한갖 허세와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자국이 승리할것이라는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전쟁을 종결짓는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의 정세분석가들도 오바마의 이번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교체조치를 자기의 《결단성》을 보여주고 떨어진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시도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하고있다.

뽈스까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속에서는 승산이 보이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발을 뽑으려는 경향이 표면화되고있다.

얼마전 뽈스까대통령대리가 아프가니스탄문제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아프가니스탄문제를 군사적방법이 아니라 정치적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이런 판단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자국병사들의 견해를 대변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대통령으로 되면 첫 단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뽈스까군의 작전을 축소하며 최종적으로는 자국군철수를 단행하겠다고 하였다. 영국수상도 자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군을 철수시킬것을 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오스트랄리아국방상은 빠른 기간내에 아프가니스탄주둔 자국군의 철수를 시작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카나다와 네데를란드는 아프가니스탄주둔 자기 나라 군대의 철수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뽑는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안팎으로 장애에 부딪치고있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반테로전》이 파산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본사기자 리 학 남

앞뒤가 다른 기만적인 연극

얼마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완화》를 위한 조치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가자지대에 반입될수 있는 물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감시하에 민수용계획들을 위한 건설자재들의 반입을 허용한다는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저들의 이번 조치로 하여 이스라엘—팔레스티나관계가 개선되고 팔레스티나인들의 생활조건이 좋아질것이라는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사회를 속여넘기기 위한 앞뒤가 다른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봉쇄완화》에 대해 떠들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면서 그와 다르게 행동하고있다. 그들은 가자지대에 대한 외부의 원조는 반드시 저들의 검사밑에 진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런가하면 해상으로의 물자반입은 절대로 할수 없다고 잡아떼고있다. 건설자재도 다른 용도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내심으로는 그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이스라엘은 《봉쇄완화》조치의 병풍뒤에서 유태인《정착촌》확장정책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최근 이스라엘은 아랍세계와 국제사회계의 반대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재개할데 대하여 결정하고 동부꾸드스에 있는 팔레스티나인들의 살림집들을 강제철거시키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불도젤들이 동부꾸드스의 헤즈마이웃마을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인살림집철거놀음은 다른 지역에로 확대되고있다.

이스라엘군은 저들대로 하마스와의 새로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막는다는 구실을 대고 무력으로 가자지대에 있는 팔레스티나인마을과 피난민수용소들을 철수시킬 계획을 작성하고 실천에 옮기려 하고있다.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관계는 더욱 팽팽해지고 중동평화과정은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스라엘이 노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가자지대《봉쇄완화》조치로 저들에게 쏠리는 국제사회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리고 팔레스티나에 대한 영구강점정책을 기어이 실현하자는것이다.

하기에 팔레스티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대 《봉쇄완화》조치를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공격사건이후 국제적인 압력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놀음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있다.

팔레스티나의 이슬람교항쟁운동 (하마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봉쇄완화》조치는 봉쇄를 해제하고 끝장낼 대신 봉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 새로운 모략이라고 까밝혔다.

하마스의 한 관리는 이스라엘이 고조되고있는 국제적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술책을 꾸미고있다,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은 진정한 봉쇄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팔레스티나이슬람교지하드운동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대 《봉쇄완화》결정을 《큰 거짓》으로, 《하나의 선전》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봉쇄완화》에 관한 이스라엘의 새 계획이 《강점국의 리익에만 부합되는 선전》에 불과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아빠스는 이스라엘의 반팔레스티나봉쇄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아랍나라들은 물론 서방나라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안팎이 다른 기만놀음을 비난하면서 가자지대에 대한 완전한 봉쇄해제를 요구해나서고있다. 이것은 응당한것이다.

팔레스티나—이스라엘관계문제가 해결되자면 이스라엘이 반팔레스티나봉쇄조치를 해제하는것과 함께 기본은 유태인《정착촌》건설정책을 그만두고 강점한 팔레스티나땅에서 물러가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비법적으로 강점한 팔레스티나땅에서 유태인《정착촌》건설을 강행하여왔다.

최근년간에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가 좋든싫든 유태인《정착촌》확장을 계속 강행할것이라고 하면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놀음을 벌리였다. 그리고는 팔레스티나에 도저히 접수될수 없는 《회담조건》이라는것을 내놓고 의도적으로 장애만 조성하여왔다.

팔레스티나땅을 기어이 《유태화》하여 영구히 지배하려는 이스라엘의 책동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사이의 반목과 대립을 격화시켰다. 이것은 팔레스티나인민들로 하여금 나라의 독립을 위해 무장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은 정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구실로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과 봉쇄로 팔레스티나인들을 탄압하고 질식시켜왔다. 팔레스티나인들을 깡그리 제거하여 강점한 팔레스티나령토를 완전히 제것으로 만들자는것이다.

얼마전에 감행된 이스라엘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계속되는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강점한 팔레스티나땅을 군사적으로 영원히 가로타고앉으려는것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야망이다. 이런 조건에서 유태인《정착촌》문제를 제쳐놓고 그 무슨 《봉쇄완화》를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에브 에레카트가 《문제로 되는것은 봉쇄완화가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고 말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모든것은 명백하다.

이스라엘은 앞뒤가 다른 기만적인 연극을 걷어치우고 강점한 팔레스티나땅에서 물러가야 한다. 여기에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다.

본사기자

ㄱ-01118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